

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증설, 틈새 규정으로 해결

 추진부서 | 고양시 기업지원과 ☎ 031-8075-3577

개선배경



- 고양시의 중첩 규제는 기업유치 등 지역 발전 및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, 시민·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조차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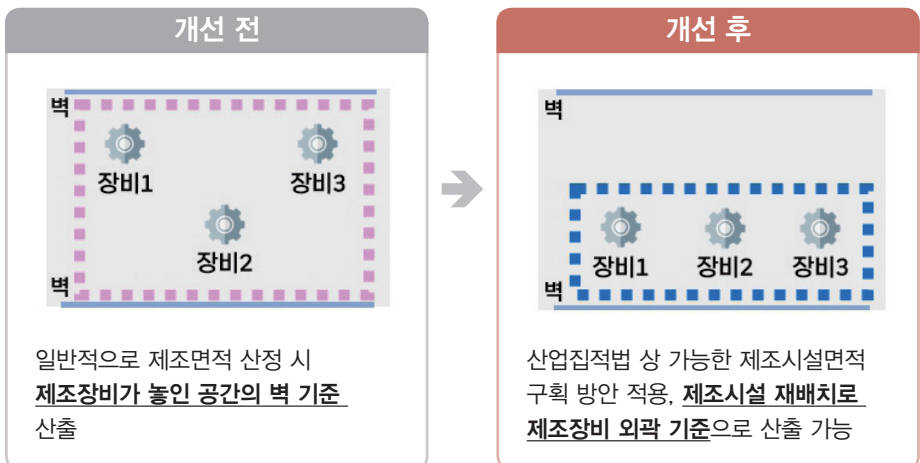
※ 고양시 중첩 규제 : 과밀억제권역(100%), 개발제한구역(42.1%),
군사보호구역(35.2%) 등

- 고양시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A기업은 2012년부터 꾸준히 공장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노력을 실시해왔으며,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로 개척 및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으로 인한 생산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확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,
- 증축 가능 면적은 '창고 등 부대시설로만 사용 가능, 제조 장비 증설은 불가'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조시설 증설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음.

개선내용



-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틈새 규정을 발굴, 제조시설 증설 가능성 확인



- 일반적으로 제조면적을 제조장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, 산업집적법상 가능한 제조시설면적 구획 방안을 적용하여 제조장비 외곽을 기준으로 제조면적 산출 가능

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(약칭 : 산업집적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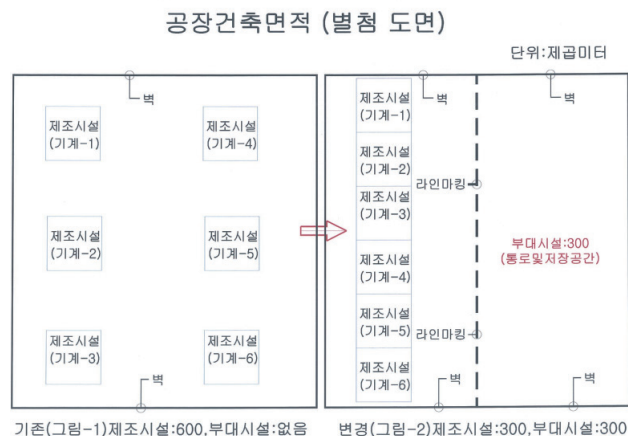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공장”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,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·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(이하 “제조시설등”이라 한다)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8조의2(공장의 설립등) 법 제13조제1항에서 “공장건축면적”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.

● 제조시설면적 산출 구획 관련 산업부 질의 (2019. 9. 29. 질의/2019.11.8. 답변)



Q. 별첨 도면과 같이 기존 제조시설을 밀집시키고 라인을 마킹하여 통로와 적재공간으로 사용할 경우, 통로 및 적재공간 면적을 제조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?

A. 해당 부분이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/지원하거나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경우, 부대시설로 간주 가능 ⇒ 상기 2가지 사례 모두 인정(유불리에 따라 선택 가능)

- 건축 연면적 2716.91㎡ 중에 증축 927.66㎡ (제조시설면적 증설 250.92㎡)



증 축 전



증 축 후

추진과정



- '20. 6. A기업 공장증축허가(설계변경) 신청
- '20. 6. 건축 부서,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협의
- (기업지원과 조건부회신) 사용승인 전 공장부지 증가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득할 것
- '20.11. 기업지원과, OO기업의 개발행위(창고증축)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창고가 아닌 제조시설 확장(추가)이라는 것을 인지
- '20.11. 제조시설 증설 관련 기업으로 상담 출장
- '21. 2.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를 거쳐, 공장증설승인 처리
- '22. 5.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 처리
- '22.12. 공장 증설 승인 완료신고 처리

개선효과



- A기업은 공장 증설로 현대식 제조시설을 갖추어,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매출액 2020년 91억 → 2023년 270억(예상), 종업원 수 2020년 100명 → 2023년 130명
-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사례의 적용으로 도심 내 부족한 개발가능지 확보와 기업의 이전 비용 지출 절감 효과 기대